

연예뉴스 HOT 5

핫펠트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 위원 활동



핫펠트

가수 핫펠트(박예은·32)가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22일 법무부는 해당 전문위원회가 다음달 초 출범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직 연예인이 법무부 전문위원이 되기는 핫펠트가 처음이다. 그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대응 정책과 제도 등을 논의하는 데 참여한다. 핫펠트는 그동안 여성 인권에 대한 소신을 드러내왔다. 그는 이날 소속사 아메바컬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관련 법이나 대처 방안, 예방 등을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져 기쁘다"면서 "전문지식은 부족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오나미, 전 프로축구 선수 박민과 열애



오나미

개그우먼 오나미(37)가 전 프로축구 선수 박민(35)과 7개월째 사랑을 쌓아오고 있다. 대구 출신인 박민은 2009년 경남 FC에 입단하면서 프로에 입문해 강원FC, FC안양 등을 거쳐 부천FC에서 수비수로 뛰었다. 2019년 은퇴했다. 22일 오나미는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평범하고 예쁘게 좋은 만남 이어가겠다. 그 분이 저로 인해 부담스럽지 않게 과도한 관심은 정중히 자제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나미는 2008년 KBS 2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2TV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했다.

트로트 가수 영탁, 영탁막걸리 제조사와 갈등



영탁

트로트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의 제조사 예천양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예천양조는 "지난해 4월 영탁과 맺은 모델 계약이 6월 만료된 상황에 영탁 측이 3년간 총 150억원의 재계약료를 요구했다"면서 "반이 들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은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자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150억원 등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예천양조가 지난해 영탁 상표 출원을 위한 사용 승낙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관련 협상을 해왔지만, 예천양조 측에서 한동안 연락이 없어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개그맨 김준현 '맛있는 녀석들'에서 하차



김준현

개그맨 김준현이 IHQ 예능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에서 하차한다. 2015년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부터 출연해 온 지 6년 만이다. 김준현은 22일 촬영을 마지막으로 '맛있는 녀석들'과 이별한다. 소속사 측은 이날 "내년 데뷔 15주년을 앞두고 재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맛있는 녀석들' 제작진은 기존 출연자인 유민상·김민경·문세운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매주 게스트를 출연시킬 예정이다.

영화 '블랙 위도우', 올해 최고 흥행작에



블랙 위도우

영화 '블랙 위도우'가 올해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 22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블랙 위도우'는 21일 현재까지 누적 관객 228만9000여명을 동원하며 올해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7일 개봉한 이후 16일 만이다. 종전 1위는 5월19일 관객을 만난 '본노의 질주:더 얼티메이트'로 228만7000여명이었다. 스칼렛 조핸슨 주연 '블랙 위도우'는 블랙 위도우의 숨겨진 과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며 관객 호응을 얻고 있다.

채널A '내일은 야구왕' 주역 김병현·김일중의 뜨거운 여정

“아이들 순수한 열정 몰입도 최고...희열 느껴”

“우리, 우승할 수 있습니다!”
따가운 땀보다 더 뜨거운 집념을 불태우는 이들이 있다. 어린이 야구단 '아이콘즈' 단원들이다. 10~13세로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야구 열정만큼은 어른 못지않다. 16명 소년들의 목표는 딱 하나. 동아일보와 인동시가 공동개최하는 '제1회 황금사자기 어린이 야구대회' 우승이다.
24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채널A 새 예능프로그램 '내일은 야구왕'이 우승컵을 향한 이들의 여정을 생생하게 담는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월드시리즈 2회 우승에 빛나는 김병현(42)이 감독을 맡아 팀을 이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일중(42)은 개그맨 이휘재와 함께 진행자로 나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메이저리그 출신 야구스타 김병현(왼쪽)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일중이 24일부터 방송하는 채널A 예능프로그램 '내일은 야구왕'에서 각각 어린이 야구 단 감독과 캐스터로 나선다.



메이저리그 출신 야구스타 김병현(왼쪽)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일중이 24일부터 방송하는 채널A 예능프로그램 '내일은 야구왕'에서 각각 어린이 야구 단 감독과 캐스터로 나선다.

CHANNEL '아이콘즈' 감독, 김병현이 얻은 새로운 타이틀이다. 감독으로 나선 것은 야구인생 처음이다. 서면으로 만난 그는 “감독으로 불리는 게 아직 낯설기도 하지만, 설렘과 궁금함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자연예인 야구단이나 다른 예능프로그램으로부터 감독 섭외를 받은 적은 몇 차례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거절했죠. 제가 사랑하고 평생을 바친 야구를 절대로 가볍게 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만난 '내일은 야구왕'은 야구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겠다는 확신도 있었죠.”
16명의 단원들을 선발하는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시간이 부족해 많은 것을 알려주기 쉽지 않다”면서도 속속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한다.

“개개인의 부족한 점과 뛰어난 점을 알려주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사소한 조언이라도 빠르게 자신의 역량으로 흡수하는 친구들을 보면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의 지도방식이 아이들의 성장과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엄청난 희열을 느낍니다.”
김 감독은 “아이들보다 학부모들이 나를 더 잘 안다”며 “웃프게” 말하면서도 “단원들 모두가 나를 진심으로 믿고 따

‘아이콘즈’ 야구단 감독 김병현 ‘야구 발전에 도움되겠다 직감’

른다”고 강조했다.

“모든 스포츠경기에서 결과는 중요하고, 선수들과 팀은 우승을 향해 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우승보다 더 값진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같이 맘을 흘리면서 하나의 팀으로 뭉치는 과정,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은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기도요.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하하하!”

김 감독은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에 시청자들도 푹 빠져들 것이라 자부했다. 2007년 KBS 2TV 예능프로그램 ‘날아라 숲돌이’를 통해 발굴된 이강인(도쿄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처럼 ‘야구 꿈나무’를 발견해낼 그 날도 꿈꾼다.
“열정적인 아이들의 각기 다른 개성이 분명 재미있게 다가갈 겁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박찬호’ ‘제2의 류현진’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마이크 잡은 아알못 캐스터 김일중 ‘아빠 마음으로 응원...울컥하기도’

김일중은 지금껏 야구와 큰 인연이 없었다. 2015년까지 아나운서로 몸담았던 SBS에서도 월드컵 등 축구만 중계했다.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 DDMC에서 만난 그는 “처음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내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사실은 ‘아알못’(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저 같이 야구를 잘 모르는 시청자를 대변하는 역할이라면 해볼 만하다 싶었죠. 게다가 ‘전설’ 김병현 감독님과 함께하니 ‘이건 된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아알못’의 야구단 매니저 겸 캐스터 생활은 녹록치 않다. 경북 안동에서 아홉살부터 모인 아이들의 훈련을 돕고, 시범경기에서는 이휘재와 중계석으로 향한다. “카메라 밖에서도 실 팀이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규칙부터 공부해야 하는 세계 해설 호흡을 맞추는 이휘재 형님은 참 든든한 존재예요. 저희끼리는 ‘동네야구 전문가’라고 부를 만큼 야구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저와 똑같이 두 아들을 둔

아빠라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죠.”
10~13세의 단원들이 두 아들과 또래여서 “더욱 아빠의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라운드에 들어서면 “눈빛이 돌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울컥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야구는 10여년 인생의 전부’라고 말해요. 찼다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정하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매일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첫 회만 보셔도 제 말에 깊이 공감하실 걸요?”
그는 단원 최종 선발 과정에도 참여해 구단을 꾸리는 데 힘을 보탤다. “단원들의 개성을 파악해 시청자에 잘 전달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단원들의 개성이 곧 프로그램의 묘미잖아요. 아이들끼리 대화하는 모습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봐야 재미있는 부분을 잘 이끌어낼 수 있어요. 요즘엔 아이들이 태아 용어를 배운다니깐요. 하하하!”
이제 시청자가 이들의 “성장 드라마”에 빠져들 시간이다. 김일중은 “나 같은 ‘아알못’도 푹 빠질 것”이라고 자부했다.

“아이들의 마음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에 제대로 몰입될 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많이 지친 시기에 아이들의 빛나는 열정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유지혜 기자

관객 투자로 만든 ‘싱크홀’ 내달 11일 개봉

제작비 145억원...손익분기점 500만명

영화 ‘싱크홀’이 여름시즌 극장가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가운데 관객의 제작비 투자를 통한 적극적 참여를 겨냥한다. 그동안 제작비 수급이 여의치 않았던 일부 저예산영화 ‘크라잉 펀드’의 관객 후원 방식을 채택했지만, 대작 상업영화의 실질적인 관객 투자 방식을 도입한 것은 ‘싱크홀’이 처음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8월11일 개봉하는 ‘싱크홀’(제작 더티워킹 처스)의 제작진과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 플랫폼 펀더풀은 23일부터 일반 투자자 모집을 시작한다. 5억원을 목표로 최소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개인 투자의 창을 연다. “극장 매출과 극장 외 매출, 극장업계와 유료방송업계 지원금의 총합이 총 비용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싱크홀’의 제작비 규모는 145억원. 극장 관객수 기준 손익분기점은 대략 450~500만명이다. 하지만 펀더풀은 “감염병 사태로 극장과 유료방송업계가 제작비의 절반을 보전해주면서 200만명 규모로 손익분기점이 낮아져 투자 환경이 더욱 좋아졌다”고 밝혔다. 물론 해외 판권과 부가판권 등 극장



영화 '싱크홀'

외 매출 규모에 따라 관객수 기준치는 달라진다.

‘싱크홀’은 순식간에 땅이 꺼지면서 500m 지하에 갇히게 된 이들의 좌충우돌 해프닝을 그리는 재난영화. 제작진은 ▲타워 ‘해운대’ ‘에시트’ ‘터널’ 등 대부분 재난 영화가 흥행해왔다는 점 ▲‘블랙 위도우’ ‘모가디슈’ 등 여름시장의 정상화 기대감 ▲차승원·이광수·김성균 등 출연진 등을 ‘투자자의 매력 요인’으로 꼽고 있다.

펀더풀은 현빈·황정민이 주연하는 영화 ‘교섭’도 같은 방식의 관객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펀더풀 윤성욱 대표는 22일 “영화 제작사 등이 온라인 사모 펀드 방식의 관객 투자를 받으므로써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귀엽게 변신’ 트와이스, 다시 일본으로

28일 정규앨범 ‘퍼펙트 월드’ 발표

케이팝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가 한국과 미국을 정복하고 다시 일본으로 향한다. 전 세계 특히 일본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자랑하며 탄탄하게 입지를 다져온 만큼 새롭게 쌓아갈 기록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트와이스는 28일 일본에서 세 번째 정규 앨범 ‘퍼펙트 월드’를 발표하고 현지 팬들과 만난다. 앨범 동명의 타이틀곡을 포함해 모두 10곡을 담았다.

이번 앨범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 변신도 시도한다. 그동안 밝고 귀여운 이미지를 강조해왔다면, 이번엔 콘셉트를 ‘사랑’으로 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뮤직비디오 등에서 걸크러시 매력을 선보인다. 최근 공개한 앨범 재킷 사진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리스마를 드러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타이틀곡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완벽한 세상에 완벽한 트와이스의 모습’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다. 앨범 발표 앞



트와이스

서 지난달 30일 선 공개한 타이틀곡은 라인뮤직, 아와(AWA) 등 현지 음원사이트에서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라인뮤직 주간 톱 100 차트(6월30일~7월6일 집계)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앞서 트와이스는 일본에서 선보인 10장의 앨범으로 ‘10연속 플래티넘’을 기록하는 등 최정상급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6월 발표한 열 번째 미니앨범 ‘테이스트 오브 러브’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도 6위에 오르며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다.